

# 포스코 등 3개사, 여수·광양·고흥에 1조원 투자

## 전남도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서 3개사와 투자 협약 김영록 지사 “3년간 30조 투자·일자리 3만5천개 창출”

전남도가 포스코홀딩스(주) 등 3개사로 부터 1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전남도는 14일 롯데호텔서울에서 투자환경과 투자인센티브를 설명하는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3개 기업과 1조 275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공영민 고흥군수, 박현식 여수부시장, 이방실 SK하이닉스 부사장, 박영태 캡시스 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장, 박희준 EIP자산운용 대표, 주영진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장, 신승철 보성부시장,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강윤성 재경광주전남향우회 수석부회장 등 100여 개 기업 대표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주력사업인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수소, 반도체 등 전남의 역점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환경과 투자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조성지구 개발시행사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미래도시로 조성 중인

솔라시도의 투자 장점을 설명하면서 관광시설, 친환경재생에너지 전용산업단지, 웰니스 산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줄 것을 요청했다.

설명회에 앞서 전남도는 포스코홀딩스(주), 금호미쓰이화학(주), LF(주) 등 3개 기업과 1조 275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했다.

이번 투자유치로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세풍산단에 투자하는 포스코홀딩스(주)는 2025년 말까지 5751억원을 투자해 양극재용 수산화리튬제조 시설을 건립한다.

금호미쓰이화학(주)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5000억원을 투자해 2024년 중순까지 폴리우레탄 핵심원료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LF는 고흥군에 2000억원을 투자해 2029년까지 250개실 규모의 호텔과 숙박·미술관·해양레저시설을 갖춘 해양휴양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2025년까지 30조원 투자유치와 일자리 3만 5000개 창출 기반을 목표로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있다”며 “전남은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많은 투자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종배 기자



2022 전라남도 투자유치 설명회·협약체결. 김영록 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수도권 앵커기업과 국내·외 주력산업 영위기업 CEO를 대상으로 열린 ‘2022 수도권 투자협약식’에서 기업, 시·군단체장들과 MOU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 자립준비청년 지원 인력·예산 확대 2023년 성장·자립·동행 3개 분야 14개 과제 본격 추진

광주시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자립지원체계를 구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성장·자립·동행의 세 가지 방향에 따라 3대 분야 14개 과제를 총총히 정비하고 사업예산도 대폭 늘렸다.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관련 총예산은 359억 원으로, 전년 315억 원보다 44억 원이 늘었다.

주요 증액 사업은 자립지원전담기관 기능 강화, 아동양육시설·아동그룹홈 종사자 인력 확충, 자립수당 지급액 인상,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한 광주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인력을 기존 7명에서 12명으로 대폭 늘

리고, 기존 장애아동 전담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해 장애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그룹홈 인력도 482명에서 503명으로 21명 늘린다. 자립수당은 기존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한다.

광주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 자립선배 멘토링·하이라인 상담 등 심리적 지원, 나눔과 연대를 통한 사회적 지원 등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광주시는 2023년부터 신규 시행으로 ▲취업 교육·대학 교재비 지원 ▲기업·기관 연계 일자리 지원 ▲맞춤형 플랫폼 구축 ▲하이라인 상담 창구 개설 ▲청년 아웃리치 ▲바람개비 서포터즈 멘토링 지원 등 6개 사업을 추진한다. /조일상 기자

# “자산C 설계변경 자문회의 회의록 조작 의혹”

## 박수기 시의원, 5분 자유발언으로 의혹 제기

안전성 문제로 완공되자마자 폐쇄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IC) 진출도로와 관련,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에 이어 자문회의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5)은 1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9년 자산C 진출로 설계변경 과정에서 자문회의 회의록이 조작된 정황을 확인하고, 시 당국에 시민 눈높이에서 행정 불신을 회복할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완공됐지만 교통이 보류된 자산C 좌측 진출로는 일반운행구조와는 정반대인데다 터널에

서 진출로까지 이격거리가 70m에 불과해 ‘675m 이상이 돼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규정에도 턱없이 미치지 않는 기형적인 진출로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민선8기 광주시는 지난 10월 교통사고 예측과 위험도평가 용역에 착수, 내년 3월 용역 결과에 따라 폐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미 충분한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최종 좌측 진출로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이 적언치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감사를 제기한 바 있다. /김도기 기자

# 2050년까지 온실가스 1억800만톤 감축 도전 전남도, 기후변화대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전남도가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을 비전으로 오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1억800만톤 감축에 도전한다.

해당 기간 동안 감축량 달성을 위해선 238조 6862억원의 사업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1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50 탄소중립 전남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은 전남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로드맵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보고회에선 에너지전환, 산업공정, 도로·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탄소흡수, 도민참여 등 8개 부

문, 102개 세부 사업이 제시됐다.

전남도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계획의 실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관련 산업, 에너지 전환, 농·축·산, 해양수산, 건물 등 5개 분야별 전문가와 세미나를 각각 개최하고 도 담당부서로 이뤄진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이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선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을 비전으로 확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50년까지 1억800만(2018년 기준)이다. 분야별로 에너지전환 1960만, 산업공정 5550만, 도로·수송 390만, 건물 390만, 농축수산 370만, 폐기물 120만을 각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 솔라시도 “기업 RE100 실현 최적지” ‘재생에너지 허브 터미널’ 조성 등 미래 비전 공유

솔라시도는 14일 전남도가 주최한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 최적지로서의 솔라시도를 소개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솔라시도는 보성산업, 한양 등 보성그룹 관계사와 전남도, 전남개발공사 등 공공이 함께 설립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해남군 산이면 일대에 조성 중인 대규모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솔라시도는 오는 2025년까지 인근업체 농지를 활용해 300메가와트(MW) 규모의 재생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소비가 동시에 가능한 ‘재생에너지 허브(Hub) 터미널’을 구축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에 입주

하는 RE100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솔라시도에 조성되고 있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에 입주하는 기업의 RE100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솔라시도에서의 RE100 실현 가능성은 최근 RE100 데이터센터 투자유치로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전남도와 보성그룹은 지난 9월 다이오드벤처스와 EIP자산운용의 합작법인인 TKG(The Green Korea)와 2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솔라시도 기업 도시에 40MW급 RE100 데이터센터 5기(총 200MW)가 건립될 예정이다. /박종배 기자

# 전남, 정보공개 평가 17개 시·도 중 1위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1~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1위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보고 후 13일 확정됐다.

전남도는 도민의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사전에 알리는 사전정보공표 분야와 투명한 행정의 최도인 공문서를 원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 공개 충실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9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박종배 기자

##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 서비스부터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화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비용 지원

저작권 상담

저작권 전반에 대한 실무상담 지원

저작권 육성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SW관리체계컨설팅

SW사용 실태진단 및 개선방향 컨설팅 지원

산업현장컨설팅

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서비스 지원

QR코드로 신청 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라남도

Joia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의 : 061-280-7493 / pjy@jcia.or.kr